

선진국 스티로폼 상자 사용실태

협회는 지난 5월 20일 농산물 포장의 선진화를 위해 「선진국의 농산물 포장용 스티로폼 상자 사용실태」를 사진자료집으로 출간하여 농민, 농협 등에 배포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홍콩 등을 중심으로 스티로폼 포장재 사용실태를 조사했으며, 사진 위주로 편집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간추려 다시 실어본다. (편집자주)

미 국 동,서부 및 북부지역에서 스티로폼 상자가 이용되고 있는 품목은 포도가 주종을 이루며 채소는 한 개 품목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유통의 세계적 유명메이커인 돌(Dole)사가 포도상자로 스티로폼 상자를 사용하고 있다. 미 북부지역인 미시간 최대 유통업체인 마이어(Meijer)에서는 계란 난좌를 100% 스티로폼 트레이로 사용하고 있고, SAM's는 70% 정도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 지역의 경우 스티로폼 상자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었으나, 계란 난좌의 트레이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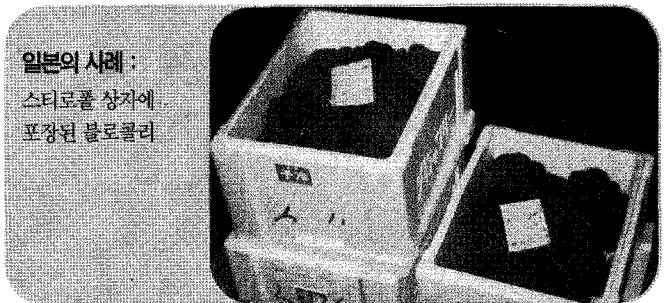
호주, 뉴질랜드 지역은 배, 토마토, 오렌지, 레몬, 파파야, 아보카도, 포우포우, 옥수수, 호박, 오이, 풋고추, 상치, 콩류 등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다품목에 스티로폼 상자가 활용되고 있었다.

일본지역은 사과, 파, 미나리, 블로콜리, 무순, 생강, 콩류, 비닐하우스의 베드용 등에 사용되고 있었으며, 시장내에 재처리 공장이 있어서 쉽게 재활용을 하고 있었다. 기타 지역으로 홍콩 시장을 조사한 결과 복숭아, 포도, 파파야, 생강 등에 사용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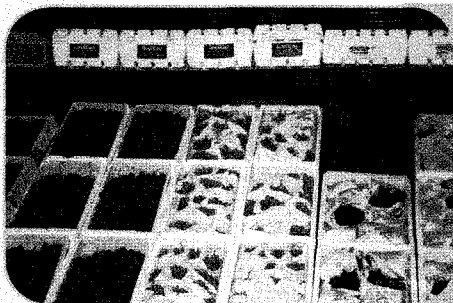
조사결과 일본의 경우 스티로폼의 사용량은 우리나라보다 20배, 국민 1인당 7.7배나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호주 등이 스티로폼 상자를 농산물 포장상자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스티로폼이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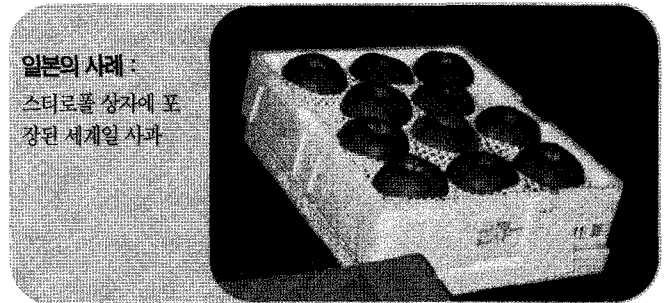
미국 LA의 사례 :
세계적 농산물 유통업체인 돌(Dole)사의 포도 포장



일본의 사례 :
스티로폼 상자에 포장된 블로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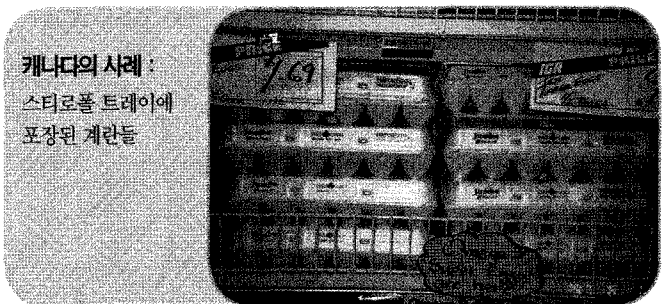
미국 뉴욕시 사례 :
포도 종류별 스티로폼 포장 진열용 샘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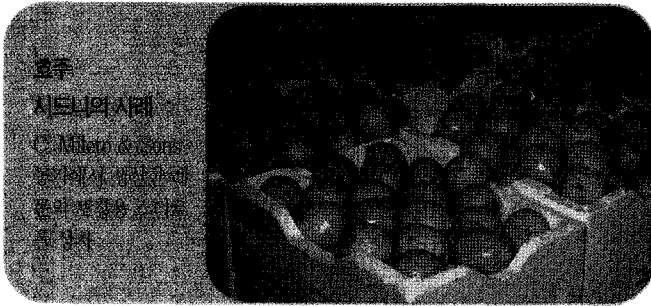
일본의 사례 :
스티로폼 상자에 포장된 세계일 사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사례 :
저게자로 운반중인 오렌지 포장용 스티로폼 상자



캐나다의 사례 :
스티로폼 트레이에 포장된 계란들



충주
시드니의 사례
C. Miller & Sons
양재용의 포장용
스티로폼 상자
중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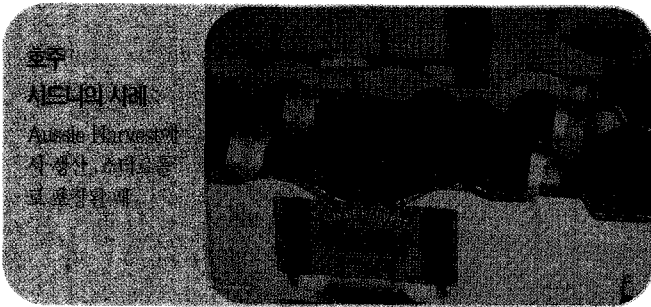
충주
시드니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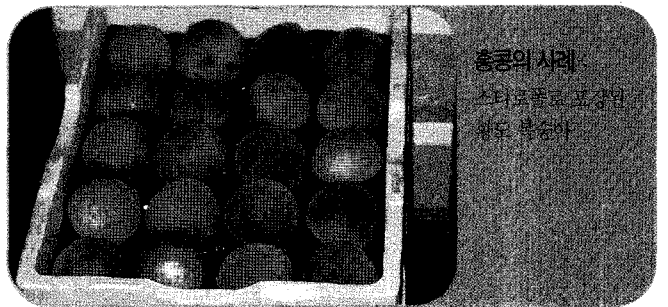
충주
시드니의 사례
양재용의 포장용
스티로폼 상자



충주
시드니의 사례



충주
시드니의 사례
Avalle Harvest에
선정된 스티로폼
포장용 상자



충주
시드니의 사례
스티로폼 포장용
상자 분장사

국회 환경포럼서 생활폐기물 재활용 실태 밝혀



최주섭 상무는 지난 3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24차 국회 환경포럼에서 생활폐기물 재활용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문제점으로는 분리배출 및 수거, 재활용 단계의 문제점 등을 들고 개선점으로는 재활용 품목의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재활용 시설의 확충 및 재활용업체의 경영수지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포도 산지 연찬회 발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2일까지 경북 영천 금호 농협에서 포도 산지 연찬회 발표가 있었다. 협회 김동섭 실장은 이날 포도 품질 향상을 위한 포장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 후 협회에서 발간한 "선진국의 농산물 포장재용 스티로폼 상자 사용 실태" 등의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스티로폼 재생액자를 기증했다.

서울시 페스티로폴 회수·재활용 실적 크게 증가

서울시 25개 구청의 올 1월부터 4월까지의 페스티로폴 회수·재활용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페스티로폴을 재생한 잉고트의 생산량은 468톤이었으나 올해는 618톤으로 32% 증가하였으며, 판매가격은 48원에서 69원으로 44% 증가하여 총판매액이 22,464,000원에서 42,642,000원으로 90% 증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4개월동안 스티로폴 재활용을 통해, 부족한 서울시 각구청의 쓰레기 매립장 4,370평(3m 높이의 매립장)을 아끼게 되었다.

서울환경상 대상 상금 500만원 서울시에 기탁



협회는 지난 6월 9일 서울시청을 방문, 제2회 서울환경상 시상식에서 환경대상으로 받은 상금 500만원을 서울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상금은 서울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으로 쓰이도록 서울시청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위원장 이기홍)에 전달됐다.